

產油量 대폭 감축 합의

제78차 OPEC 총회

지난 7월 28일부터 제네바에서 속개된 제78차 OPEC(石油輸出國機構) 총회는 油價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이란이 제시한 하루 산유량 1천6백만배럴 수준(현재의 2천만 배럴 수준에서 4백만배럴 감축)으로의 감축안에 합의하고 지난 8월5일에 9일간의 회의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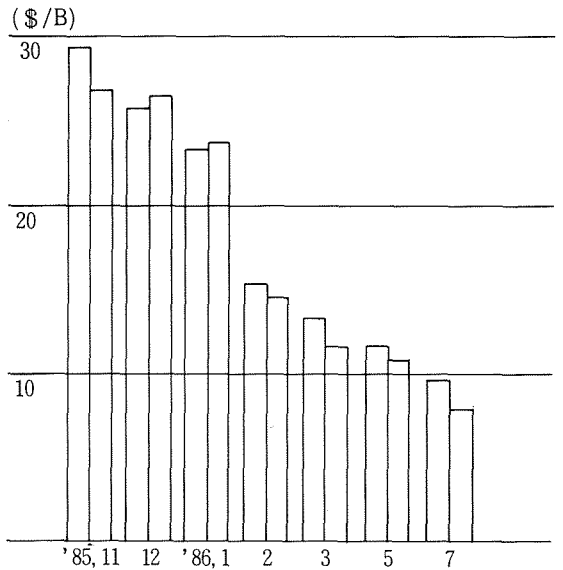
이란측 제안은 이라크를 제외한 12개 회원국의 전체산유량 상한선을 1천4백80만배럴로 감축하자는 것인데, 이라크의 하루 산유량이 현재 1백90만~2백만배럴로 추정되기 때문에 OPEC 전체산유량은 하루 1천6백70만~1천6백80만배럴로 현재의 2천50만배럴 보다 4백만 배럴이 감축되는 것이다.

루크만의장은 이번에 합의된 산유량 감축안이 오는 9월 1일부터 약 2개월간 잠정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회원국들이 국별산유쿼터를 엄격히 준수할 경우, 새로운 유가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중 OPEC石油相회의가 다시 소집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아마니 사우디 石油相은 OPEC의 이번 합의가 전체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가운데 이루어진 공식합의로써 일종의 코뮈니케를 채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로 인해 당초의 시장점유율유지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解説 현재라는 시점에서 과거의 에너지에 관한 예측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앞을 내다 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절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수요예측만 보더라도 근래에 나타난 것과 같은 급속한 감소를 예상

原油 現物가격 추이



□ WTI
 □ Mideast Light (두바이)

〈資料〉 PIW 各號

한 예는 적었으며, 또한 원유가격전망에 있어서도 그토록 단시일내에 상승했다가 다시 급속히 하락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지난 7월28일부터 9일간

國際 原油價 推移 및 展望

(單位: \$/B)

|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
| OECD ¹⁾ | 28.00 | 26.40 | 17.50 | 15.00 | - | - | - |
| WEFA ²⁾ | 29.09 | 28.09 | 15.53 | 15.86 | 18.41 | 21.18 | 23.19 |
| DRI ³⁾ | 28.87 | 27.04 | 16.68 | 15.80 | 17.21 | - | - |
| NRI ⁴⁾ | 28.10 | 27.20 | 19.10 | - | - | - | - |

〈資料〉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1986.

WEFA, *World Economic Outlook*, May 1986.

DRI, *Review of the U. S. Economy*, June 1986.

NRI, *Quarterly Economic Review*, May 1986.

〈註〉 1) OECD 中 6 大국의 加重平均原油 輸入價(f. o. b)임.

2) OPEC 國別 산유량에 의해 加중평균된 가격(f. o. b)임.

3) 美國 精油業者의 海外原油 취득가격임.

4) NRI추정 OPEC 평균가임.

제네바에서 열렸던 제78차 OPEC 총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인 전망은 이번 총회에서도 國別산유량감축에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전망은 완전히 빛나가고 말았다. OPEC 회원국들은 비록 2개월간의 잠정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현재 2천만배럴 수준의 하루 산유량을 1천6백만배럴수준으로 감축키로 합의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油價에 관한 전망이 그대로의 中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油價에 관해 가장 틀림없이 예언할 수 있는 것은 不確實하다는 말 뿐』이라는 역설적인 名譽까지 생겨 났는지도 모른다. 바로 이번 OPEC 총회만 하더라도 이 名譽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해 준 셈이다.

OPEC의 산유량 감축은 단기적으로는 국제원유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석유전문가들은 OPEC의 감산합의로 원유가격이 오는 10월에 가서는 배럴당 15달러로, 금년말에 가서는 18달러로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일부 석유전문가들은 이제 10달러 이하의 低油價시대는 끝났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으나, 사태는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제원유가격이 OPEC의 의도대로 올연말까지

배럴당 17~19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당분간 심리적 가격상승현상이 지속될 것임은 분명하다.

앞으로 원유가격의 向方은 OPEC 회원국들이 감산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느냐의 여부에 좌우될 것 같다. OPEC는 과거에도 각 회원국들간에 산유량 속이기 및 가격 할인등으로 서로간의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파탄을 자초했다. 더우기 OPEC 산유국들은 대부분 그동안의 원유가격 하락으로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 收入감소로 연결되는 감산약속을 어느 정도 준수하느냐 하는 것이 주목된다.

한편 OPEC의 감산으로 국제원유가격이 반등한다 해도 국내유가는 당분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지난 3월30일의 제2차 국내 油價조정 당시 국내도입단가를 18.34달러로 책정한 이후, 하락분을 모두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도입단가가 7월 현재의 10.15달러 수준에서 반등한다 해도 18.34달러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국내유가를 인상조정할 필요가 없고, 그 이상 오른다 해도 그동안 조성된 기금으로 이를 흡수할 여력을 갖고 있다. ☐

